

“햇볕 썰쟁, 그늘섬서 잠시 피하세요”



여수시는 죽림초 횡단보도 등 도심 횡단보도 30곳에 그늘막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도원로 죽림양우내안아파트 사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여수시는 죽림초 횡단보도 등 도심 횡단보도와 교통섬 등 30곳에 그늘막을 설치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보행 시민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썰쟁 내

여수시, 죽림초 횡단보도 등 30곳에 그늘막 설치 햇볕 가림 효과 탁월·기온 2~3도 낮아 썰터가능

없는 곳 등을 고려했으며 가로수 그늘이 있거나 그늘막이 운전자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 상가 간판 등을 가리는 곳 등은 일단 제외했다.

그늘막 색상은 도심 경관을 고려해 해양관광 휴양도시와 어울리는 푸른색 계열로 결정했으며 태풍 등 기상악화 시 철거가 쉬운 구조로 설치했다.

여수시의 경우 지난 주말 36도에 육박하며 폭염주의보가 내리는 등 최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늘막’은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썰터가 되고 있다.

실제 그늘막 속은 바깥 온도보다 2~3도 정도가 낮고 직사광선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위를 피하

는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기상악화 시 그늘막을 신속하게 철거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영조물 배상과 재해 복구 공제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앞으로는 폭염이 이어질 경우 18규모 실수 차량을 동원해 도심 식히기 작업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무더위에 취약한 노약자 등을 돕는 재난 도우미 128명을 지정하고, 냉방기기를 갖춘 무더위쉼터 333곳을 운영하는 등 여름철 시민건강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횡단보도에 설치한 그늘막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늘막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완도 신지도 철갑다시마 수확 막바지

150여가 167ha 양식장서 매년 약 600t 생산·판매

태풍이 물러나고 장마가 주춤하며 맑은 날이 이어지자 완도 신지도 어민들이 철갑 다시마 막바지 수확을 서두르고 있다.

신지도는 다시마, 톳, 광어, 전복 등 해조류와 어패류 양식의 메카이며 철갑다시마 생산지로 유명하다.

특히, 신지도에서 생산되는 다시마는 업체의 두께가 두껍고 오래 두어도 쉽게 맛이 변하지 않아 철갑다시마로 부른다.

신지도는 150여 어가가 167ha의 양식장에서 매년 약 600여 톤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0억 원 상당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지도 철갑다시마가 상품성이 뛰어난 것은 조류 소통 등 해조류 생육 여건이 매우 적합

하고 어민들이 제때에 수확 작업과 광선이 모자란 퇴치 작업을 실시하여 다시마가 자라기 좋은 양식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정바다에서 어민들의 손길이 닿은 다시마는 짧게는 3m에서 길게는 5m까지 자란다.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수확하는 다시마는 산소음어온을 머금어 해풍이 불어오는 양지바른 육지 건조장에서 위생적으로 건조하여 출하하기 때문에 최고의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

금년 수확 위판가격은 kg당 평균 9,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금년에도 600여톤을 생산하여 51억 원의 소득을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완도=김광수 기자

무안군, 고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피해 최소화 노력

최근 고온 다습 기후...예방적 방제로 피해 최소화

무안군은 최근 고온 다습한 기후로 고추 바이러스병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지역의 고추 재배농가에게 고추 바이러스병 피해방지를 위한 해충방제 등 예방적 방제 활동을 당부했다.

농가에서 “갈리병”으로 불리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는 새로 나오는 줄기 부분이 마르면서 과사하거나, 잎에 원형의 무늬가 생기고 과실은 얼룩덜룩해지는 증상을 보인다.

고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는 병이 발생되면 직접적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매개충인 총채벌레를 방제하여 병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해 병징이 보이는 개체는 바로 뽑아 소각하거나 매몰하는 방법으로 감염주를 없애고, 즉시 매개충을 철저히 방

제해야 한다.

또한, 해충 피해가 심한 고추농가의 경우 방제 효과를 높여려면 5~7일 간격으로 유효성분이 다른 2~3가지의 약제를 번갈아 뿌려주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고추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초기에 감염주를 제거하고, 적용약제로 해충방제를 철저히 해야한다.”면서 농가의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장흥군, 다문화가정 엄마와 “음식 만들go, 체험하go”



장흥군은 지난 14일 장흥고 도선관에서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다문화

화 전통 음식 만들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장흥군건강가정·다

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장흥고등학교 훈민정음 동아리와 함께 추진했다.

장흥고 훈민정음 동아리는 2015년부터 다문화가정 자녀 6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 멘토링 및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있다.

훈민정음 동아리는 학습지도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들이 학습에 흥미와 자

신감을 불어넣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에 힘쓰고 있다.

이날은 특별히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훈민정음 동아리 학생과 다문화가정 학부모가 만났다.

학생들과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다문화음식을 함께 만들고 시식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기회를 가졌다.

장흥군은 성실히 활동하고 지원 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학생 자원봉사자 5명을 표창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장흥고 동아리 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하여 보람과 성취감을 경험하면서 한층 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진도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진도군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부터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특별지도·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각종 건설 공사의 증가로 비산먼지 발생량이 많고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반은 2개반 5명이 운영되며, 기간 내 지도·점검과 합동 지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비산먼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군은 위반사업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과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시정될 때까지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발생 감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성용 기자

지역공감·미래성장·정분직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